

한국전산(주)

## 소프트웨어산업의 「인력공급처」



18년간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이끌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 일명 「인력공급처」라 불리는 한국전산(KICO).

서울 북한산 줄기, 성북동에 자리한 한국전산은 1971년 7월 자본금 5천 5백만원, 한국보험전산(주)라는 상호로 설립,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 발을 들여 놓았다. 당시는 컴퓨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나 기업에서의 컴퓨터 이용이 미미한 상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시작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었다.

그러나 수백만의 계약자를 관리해야 하는 국내 生命保險社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계약자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 결과 東防生命과 大韓教育保險이 3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아시아 생명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일본의 協榮生命이 기금을 투자, 한국보험전산이라는 소프트웨어 하우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출발 당시는 생명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진력했지만, 현재 주요산업으로는 전산화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각종 범용패키지 개발 등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외에 성적·급여·DM 등 전산운영 업무처리, OA기기 판매 및 정비보수를 하고 있다. 주보유장비는 FACOM M360R 및 IBM4331.

88경영목표는 「챌린지 88」, 세부사항으로 「1. 목표달성 2. 신기술, 3. 올림픽 성공」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전산 260여명의 모든 임직원이 긍지와



▲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는 田光輅사장

자신감을 갖고 혼연일체가 되어 열을 올리는 사업은 88 올림픽대회 지원시스템 개발.

이 시스템은 숙박관리·수송관리·물자관리·연습장관리의 4가지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박관리시스템은 선수를 제외한 올림픽 참가자들의 숙박에 대한 예약 및 정보제공 시스템으로 전숙소를 총괄하기 위해 고객의 숙소예약 및 배정정보 제공, 예약금 관리, 체크 인·아웃 처리, 숙박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송관리 시스템은 대회의 원활한 수송체계를 위해 차량과 운전요원의 관리, 정기 및 비정기차량 운행 계획관리, 배차 및 노선관리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자관리 시스템은 물자의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기에 조달·배치하고, 계획에 의한 사전 추진체제로 물자의 지원·저장·관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경기운영과 아울러 사용 후 물자를 경제적으로 처분하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연습장관리 시스템은 연습장 배정업무에 신속하게 수행, 각국의 선수단에게 배정결과를 적기에 통보하여 각국 선수단이 균등하게 연습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연습장 배정상황을 총괄 관리, 관련업무에 종합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전산은 84년 7월 88올림픽 전산화 사업 참여업체로 지정된 다음, 84년 올림픽개최지인 로스엔젤레스에 조사단을 파견, 현지조사를 통해 올림픽 지원시스템 전산화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어 86년 3월에는 ANOC 총

회에 숙박관리 시스템을 적용·운영하였고, 86년 가을 아시안게임 전산 운영에 참여, 전산운영이 「아시안게임 베스트 5」에 선정됨으로써 자신감을 얻었다. 이어 아시안게임 운영 결과 나타난 자료의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숙박·등록·출입국업무 등을 연결하는 통합시스템을 설계하였고, 87년 8월에는 5개 프레올림픽 대회에 통합 시스템을 적용, 숙박관리를 시험 운영하였다.

이 대회지원 시스템은 올 6월까지 문제점 보완을 완료, 7월에는 전산운영 리허설을 가진 후, 8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시스템의 특징은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SLOOC)와 관련기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포괄적인 면에서 세부적인 면으로 기능이 점차 세분되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 의한 구조적 분석기법(YORDON method)을 사용, 자료의 흐름을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상대화방식(Pseudo Conversational)을 사용,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실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만 메모리를 점유하도록 하여 기억장치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셋째, IBM제공 IMS/DB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Data Base) 로지컬 릴레이션십(Logical Relationship)을 이용, 데이터의 이중관리에 따른 불일치를 없앴다.

네째, 화면간의 이동방식을 화면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메뉴방식과, 보고싶은 화면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직접이동방식 모두를 사용, 사용자의 단말기 조작을 편리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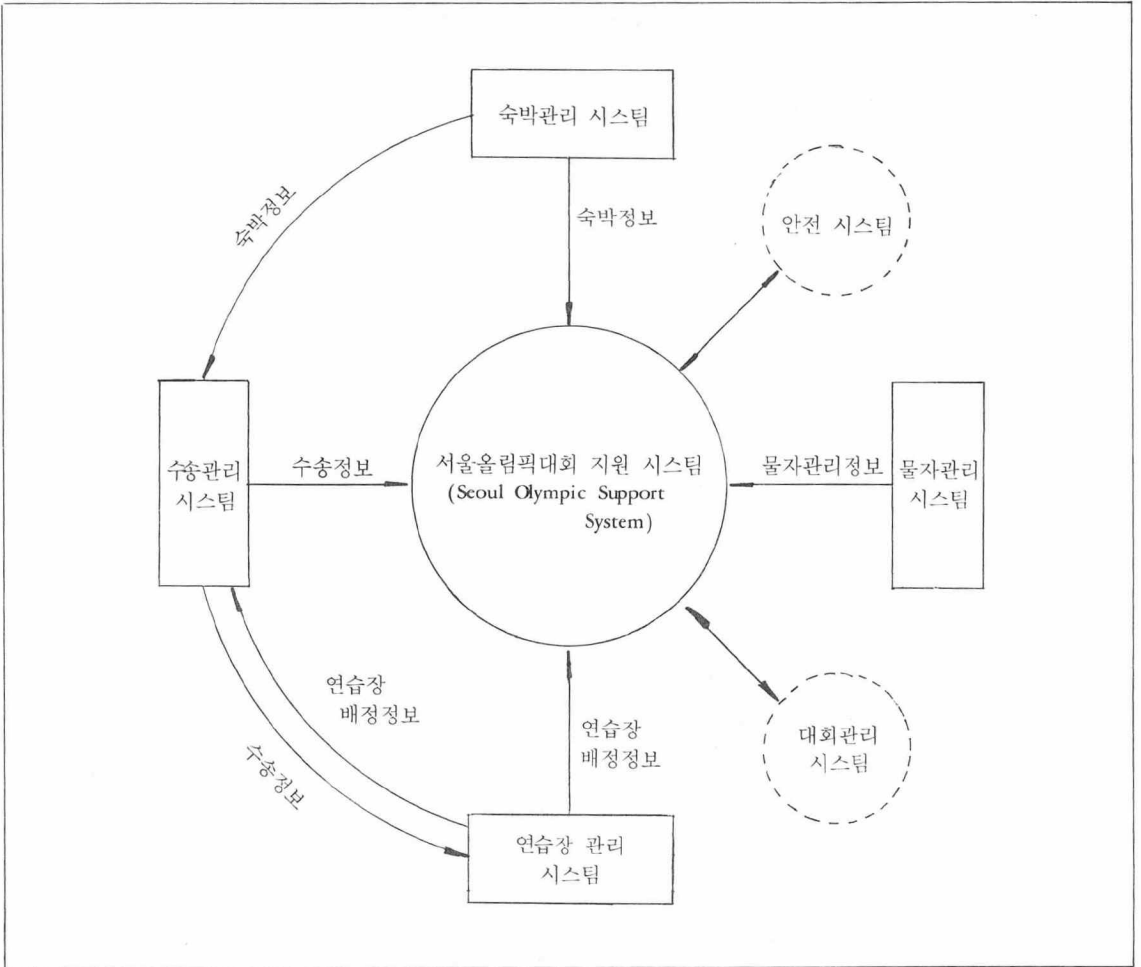
다섯째, 공통되는 기능을 추출하여 서브프로그램화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이 작업을 위해 4년간 매월 1,000명의 인원이 투입되었으며, 기술지원반을 설치, 소프트웨어 개발의 생산성 향상 및 QC부문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부수적으로 88올림픽 전산관련 업무개발 현황을 보면 경기속보 기록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계 각국 기자를 위해 DNS를 이용한 취재용 통신망을 한국데이터통신이 ID카드 작성·선수준(기자준 포함)관리를 쌍용컴퓨터가 맡았다.

한국전산은 72년 10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고, 78년 10월 정보처리 전문기술 용역업 국내 제 1호로 과학기술처에 등록, 85년 6월 자본금을 4억 7천만원으로 증자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억원, 올해는 40억원을 목표로 하고

## ● 88올림픽대회 지원시스템 구성도



있다. 한국전산의 그간 주요실적은 일본 후지쓰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참여, 서울시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화 개발, 전매청 종합경영정보체제(MIS)개발, 내무부 지적 관리 전산화 개발, 86아시아게임 전산운영, 88올림픽 대회지원 시스템 개발등이다. 그밖에 국가기간 전산망 사업에도 참여, 행정전산망 자동차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올 3월 완료하였다.

전산경력 15년의 전문인력만도 전체직원의 10%에 이르고 있어 KICO는 인력을 제1의 재산으로 꼽고 있다.

또한 인재육성을 위해 1년 단위로 4~5명을 교육연수와 OJT를 위해 일본 교에이 계산센터에 파견하고 있다.

당 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田光輅(55)사장은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가 워낙 작아 기업이 전문인력 양

성에 등한시하다 보니 기술 양성이 제대로 안됐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에 의한 인재 스카우트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대기업은 스스로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꽃」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커밍 홈데이(Coming home day)를 마련, KICO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을 초청, 옛 정을 나눠 보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는 田사장은 『소프트웨어의 진가가 인정되는, 그래서 재값을 받는 사회를 위해 모든 업체와 관련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맺어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